

# 中·高等學生的 經濟的背景과 讀書興味와의 關係에 관한 研究

金 斗 弘\*

## 〈目 次〉

- |             |                       |
|-------------|-----------------------|
| 1. 研究의 必要性  | b. 資料의 處理手法           |
| 2. 研究의 目的   | 5. 結果 및 解釋            |
| 3. 研究의 方法   | a. 娛樂的讀書과 生活水準과의 關係   |
| a. 研究方法의 骨格 | b. 知識獲得的讀書과 生活水準과의 關係 |
| b. 標集의 方法   | 關係                    |
| c. 生活程度의 分類 | c. 修養的讀書과 生活水準과의 關係   |
| d. 讀書領域別 內容 | d. 審美的讀書과 生活水準과의 關係   |
| e. 研究方法의 制限 | 6. 結論 및 反省            |
| 4. 資料의 處理   | a. 結 論                |
| a. 資料의 檢討   | b. 反 省                |

### 1. 研究의 必要性

각종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發達은 知識과 敎養의 獲得手段으로서의 書籍 내지 印刷 미디어의 地位에 적지 않은 變動을 일으키 왔다.<sup>1)</sup> 그리고, 敎育現場에 있어서는 書籍中心主義가 퇴세하고 視聽覺的 敎授-學習의 方法이 尊重되게 되었다. 그러나 “敎育에 있어서의 讀書의 必要性과 効果性은 조금도 減퇴하지 않고 있다.”<sup>2)</sup> 뿐만 아니라, “讀

★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KORSTIC)資料管理局長

- 國內의 한 調查報告에 의하면, 라디오, 텔레비전, 新聞 및 個人的 커뮤니케이션의 4 가지 情報源의 利用趨勢에 대하여 1962年과 1968年을 比較하고 있는데, 라디오는 28.1%(62年)에서 64.1%(68年)로, 텔레비전은 0.2%(62年)에서 10.8%로 모두 높은 上昇率을 나타내고 있는데 反하여 印刷 미디어로서의 新聞의 利用率은 16.9%(62年)에서 20.8%(68年)로 輕소한 上昇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明知大學附設韓國放送文化研究院, “서울市內 中瀆層 236 세대를 대상으로 한 視聽者輿論調査.” 放送文化, 創刊號(68.3.) pp. 112-5.]
- 石山脩平, 道德的人間形成と讀書指導 (日本讀書學會, 編. 讀書による人格形成, 東京, 敎書店, 1958. pp. 25-6.)

書力은 一切의 學習의 基本的 能力인 동시에, 社會的으로 經驗을 높이고 넓혀가는 基本的 條件인 것이다.”<sup>3)</sup>

따라서, 讀書力을 배양하고 바람직한 讀書態度, 技能, 및 慾求를 길러주는 일은 各급 學校教育의 한 基本的 課業이라 하겠거니와, 이 일에 대하여 우리 中等教育界는 거의 外面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것은 明白히 中等教育의 한 虛點이며, 이 虛點을 補完하는 作業이 時急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中高等學生의 讀書實態에 관한 한 調查報告에 의하면, 그들의 86% 以上이 讀書指導를 希求하고 있다.<sup>4)</sup>

靑少年들의 讀書指導는 그들의 讀書生活 實態의 파악에서 出發되어야 하며, 本研究는 그 實態 파악을 위한 한 努力인 것이다.

本研究에서 學生들의 經濟的 背景과 讀書興味와의 關係를 究明하고자 試圖한 까닭은, 課外活動이나 學習內容의 興味 등이 學生들의 社會的 階層과 깊은 關係를 가지고 있으므로,<sup>5)</sup> 學習內容에 대한 興味の 한 部分 또는 그 具體的인 表現의 한가지라고 할 수 있는 讀書興味の 樣相을 社會階層과의 關聯에서 밝힐 수 있다면, 學校外的 環境이 學校社會的 機能에 미치는 影響의 한 側面을 理解하는 데 有助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階層 間に 讀書興味上的 어떤 差異가 發見된다면, 그것은 階層間的 成就動機水準의 差異에서 오는 한 結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本研究는 學生들의 成就動機水準을 높이기 위한 教育計劃의 樹立에 약간의 資料를 提供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最近의 한 研究는 個人이나 集團의 成就動機水準은 意圖的이며 計劃的인 教育課程에 의하여 높일 수 있다고 報告하고 있다.<sup>6)</sup>

3. 日本, 圖書館教育研究會, 編. 學校圖書館資料의 選擇. 東京, 學藝圖書, 1955. p.10.

4. 徐鳳延, 東載浩, 共著. 中고등 학생 및 교사들의 독서경향에 관한 조사. 서울, 中央教育研究所, 1962. p. 17.

5. 朴容憲, 學校社會. 서울, 培英社, 1968. pp. 25-6.

6. 鄭範謨, 朴容憲, 共著. 成就動機; 그 育成課程의 理論과 實際. 서울, 培英社, 1969. p.13.

## 2. 研究의 目的

本研究의 目的은 社會階層 혹은 生活程度 「上」「中」「下」各階層에 속하는 中高等學生들이 4 가지 讀書領域 즉, (1) 娛樂的讀書(Recreational Reading), (2) 知識獲得的讀書(Informative Reading), (3) 修養的讀書(Inspirational Reading), 및 (4) 審美的讀書(Aesthetic Reading)에서 나타내는 相對的 興味度를 밝히려는 데 있으며, 具體的으로는 다음과 같은 假說을 證明하려는 데 있다.

假說 1. 娛樂的讀書에 있어서는, 生活程度가 높은 階層일수록 그 比率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假說 2. 知識獲得的讀書에 있어서는, 生活程度가 낮은 階層일수록 그 比率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假說 3. 修養的讀書에 있어서는, 生活程度가 낮은 階層일수록 그 比率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假說 4. 審美的讀書에 있어서는 生活程度가 높은 階層일수록 그 比率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生活程度의 分類” 및 4 가지 “讀書領域의 內容”은 <3. 研究의 方法>에서, 그리고 “假說의 根據”는 <5. 結果 및 解釋>에서 각각 밝혀 두었다.

## 3. 研究의 方法

### a. 研究方法의 骨格

生活程度 上, 中, 下 별로 각각 同一한 數의 「個人讀書 카아드」<sup>7)</sup>를 標集하여, 개개의 카아드에 記錄된 貸出圖書 또는 閱覽圖書를 讀書領

7. 「個人讀書 카아드」라고 함은 各學生 마다 館外貸出 또는 館內閱覽한 圖書를 記錄하기 위하여 마련되는 카아드로서, 보통 分類番號, 書名, 貸出日 및 返納日을 記入하도록 되어 있다. 이 카아드는 學年別, 學級別로 學番順에 따라 排列되며, 圖書館內의 一定한 곳에 備置된다.

域(目的)별로 集計함으로써, 生活程度 上, 中, 下 各集團이 나타내는 目的別 讀書集中度를 測定하여 各 集團 間に 有意한 差異가 있는지 알아 보았다.

### b. 標集의 方法

個人讀書 카아드의 標集에 있어서는 먼저 地域選定을 하고, 다음에 學校選定을 하였으며, 끝으로 調査對象學生을 選定하여 그 學校의 圖書館에 備置된 該當學生의 個人讀書 카아드를 標集하였다. 여기에 있어서,

(1) 選定된 地域은 서울, 釜山, 大邱, 大田, 光州 및 仁川의 6개 市이다. 生活程度 上, 中, 下의 區分에 意味를 갖게 하기 위하여 大都市에 所在하는 學校만을 選定하였다.

(2) 學校選定은 各市 마다 男中 1個校, 女中 1個校, 男高 1個校, 및 女高 1個校, 都合 24個校로 하였다.

(3) 個人讀書 카아드의 標集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많이 읽은 것과 지나치게 적게 읽은 것을 除外하였다. 그리고, 學校別 個人讀書 카아드의 標集은 다음 表와 같이 하였다.

〈表-1〉 學校別 個人讀書 카아드의 標集

學 年	生活程度			계
	上	中	下	
1	20명	20명	20명	60명
2	20	20	20	60
3	20	20	20	60
계	60	60	60	180

### c. 生活程度의 分類

生活程度 上, 中, 下의 分類에 있어서는 學校에 비치된 學生 生活記錄 綴을 參考하되, 學級擔任의 最終判定에 따랐다. 上, 中, 下의 比率은 學級別로 「上」을 15~25%(10~15명), 「下」를 15~25%(10~15명), 나머

지를 「中」으로 하되, 學校의 實情에 따라서 多少의 加減을 許容하였다.

d. 讀書領域別 內容

前述한 바 4 가지 讀書領域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1) 娛樂的 讀書: 小說, 童話, 戯曲, 神話, 隨筆(文學的), 手記, 記行文 등의 讀書.

(2) 知識獲得的 讀書: 各教科에 關된 參考書, 一般的 實用書, 參考圖書類, 및 各主題의 理論書, 方法論, 歷史 등의 讀書.

(3) 修養的 讀書: 宗教書, 倫理·道德書, 傳記, 金言集 등의 讀書.

(4) 審美的 讀書: 詩集, 音樂書, 美術書 등의 讀書.

e. 研究方法의 制限

以上の 研究方法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制限點이 있다.

첫째, 生活程度上, 中, 下의 區分에 있어서, 學父兄의 所得額과 같은 具體的인 數字를 基準으로 하지 않고, 評判的 方法을 使用한 點이다.

그러나, 同種의 한 研究<sup>8)</sup>에 있어서, 研究對象者를 面接하여, “豊足하다(prosperous)” “安樂하다(comfortable)” “그럭저럭 살아간다(getting-by)” “형편이 어렵다(poor)”라는 4 가지 生活水準 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를 本人들에게 물어서 生活程度를 判定한 例가 있으므로, 學生들의 환경을 比較的 正確하게 파악하고 있는 學級 擔任教師를 시켜서 學級生을 生活水準에 따라서 上, 中, 下로 區分하게 한 方法도 許容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個人讀書 카아드에 記錄된 個個의 圖書를 一方的으로 定해진 틀에 따라서 分類, 集計한 點이다.

一般的으로 小説은 娛樂的인 目的에서, 傳記는 教養的(修養的)인 目的에서, 그리고 詩集은 審美的인 目的에서 讀書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圖書일지라도 어떤 課題解決에 關連시켜서 讀書한다면 知識獲得的 讀

8. Robert Hans Muller. *Social Stratification in Magazine Fiction and its Relations to the Socioeconomic Status of Reader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42.

畫가 될 터이지만, 이러한 사정을 계산에 넣을 수가 없었다.

이 같은 제한을 보완하는 데는 質問紙法의 使用을 考慮할 수가 있었으나, 質問紙를 통하여 “어떤 目的에서 주로 讀書하는가”를 學生들에게 묻는다는 것은 無意味하다는 報告가 있다. 즉, 學生들은 實際에 있어서 興味爲主(娛樂爲主)의 책을 주로 읽으면서, 質問을 받으면 공부에 도움이 되고 知識을 얻기 위하여 책을 읽는다고 對答하는 것이 普通이라고 한다.<sup>9)</sup>

셋째, 個人讀書 카아드를 備置하고 있는 學校圖書館이 예상 외로 적어서 對象學校의 選定에 있어서 同質的인 學校만을 고를 수가 없었으며, 計劃된 數대로의 資料를 수집할 수가 없었다.

계획된 수의 資料蒐集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은, 標本의 크기가 계획한 것보다 축소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研究의 結論을 내리는데 조심성을 強要하는 結果가 되었다.

#### 4. 資料의 處理

##### a. 資料의 檢討

個人讀書 카아드는 當初에 서울, 釜山, 大邱, 大田, 光州, 및 仁川의 6大 都市에서 24個校를 選定하여, 校當 180名分(生活程度 上, 中, 下 別로 各 60名分) 都合 4,320名分을 標集할 계획이었으나, 實際로 수집된 카아드는 15個校의 2,700名分 밖에 되지 않았고, 더욱이 有效資料로서 作業에 使用된 카아드數는 7個校(男中 1, 女中 2, 男高 2, 女高 2)의 1,260名분에 불과하였다.

수집된 15個校分の 카아드 가운데 결함이 있다고 認定된 8個校分을 除去하였거니와, 그 결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一齊的인 課題讀書가 實施된 것으로 判斷된 學校(같은 學年の 學生이 같은 時期에 읽은 책의 種類가 거의 같은 學校), (2) 教科參考書, 實用書 등의 圖書는 讀

9. 徐鳳延과 車載浩, *op. cit.*, pp. 25-6.

〈表-2〉 有効資料 一覽  
(카아드數는 學生數와 一致함)

			男 高	男 中	女 高	女 中	計
서 울	학 교 수		1		1	1	3
	카아드수		(180)		(180)	(180)	(540)
釜 山	학 교 수		1			1	2
	카아드수		(180)			(180)	(360)
大 邱	학 교 수				1		1
	카아드수				(180)		(180)
仁 川	학 교 수			1			1
	카아드수			(180)			(180)
계	학 교 수		2	1	2	2	7개교
	카아드수		(360)	(180)	(360)	(360)	(1,260枚)

書하였을지라도 카아드에 記入하지 않도록 指示된 것으로 추측되는 學校, (3) 藏書構成에 있어서 포괄성이 缺如된 學校, 및 (4) 카아드 標集過程이 소홀한 學校(研究者가 직접 표집하지 않고, 現地人士에게 의뢰하여 표집하게 한 學校 중에 그러한 것이 있었다.)

b. 資料의 處理手法

(1) 有効資料 1,260名分の 個人讀書 카아드는 한 장 한 장 記錄된 書名을 읽어서 讀書目的別(領域別)로 分類하여 먼저 校別로 集計하고, 다음에 同種의 學校 끼리 合算하였다. 그 結果는 表-3, 4, 5, 및 6과 같다

〈表-3〉 男子中學生의 資料集計 結果  
(上, 中, 下 各 60名, 都合 180名의 讀書記錄集計)

興味領域		(1) 娛樂的讀書	(2) 知識獲得的讀書	(3) 修養的讀書	(4) 審美的讀書	計
上	빈도	500	47	47	2	596
	(%)	(83.89)	(7.89)	(7.89)	(0.33)	(100.00)
中	빈도	616	64	64	6	750
	(%)	(82.14)	(8.53)	(8.53)	(0.80)	(100.00)
下	빈도	611	66	66	1	744
	(%)	(82.12)	(8.87)	(8.87)	(0.14)	(100.00)

〈表-4〉 女子中學生의 資料集計 結果  
 (上,中,下 各 120名, 都合 360名의 讀書記錄集計)

興味領域 生活程度	(1) 娛樂 的讀書	(2) 知識獲 得的讀書	(3) 修養 的讀書	(4) 審美 的讀書	計
上 빈도	1,359	104	51	—	1,514
(%)	(89.76)	(6.88)	(3.16)	—	(100.00)
中 빈도	1,431	162	63	4	1,660
(%)	(86.20)	(9.74)	(3.82)	(0.24)	(100.00)
下 빈도	1,174	328	71	3	1,576
(%)	(74.52)	(20.81)	(4.48)	(0.19)	(100.00)

〈表-5〉 男子高等學生의 資料集計 結果  
 (上,中,下 各 120名, 都合 360名의 讀書記錄集計)

興味領域 生活程度	(1) 娛樂 的讀書	(2) 知識獲 得的讀書	(3) 修養 的讀書	(4) 審美 的讀書	計
上 빈도	977	221	120	45	1,363
(%)	(71.68)	(16.21)	(8.80)	(3.31)	(100.00)
中 빈도	964	282	126	17	1,389
(%)	(69.40)	(20.30)	(9.06)	(1.24)	(100.00)
下 빈도	885	281	178	38	1,382
(%)	(64.04)	(20.33)	(12.88)	(2.75)	(100.00)

〈表-6〉 女子高等學生의 資料集計 結果  
 (上,中,下 各 120名, 都合 360名의 讀書記錄集計)

興味領域 生活程度	(1) 娛樂 的讀書	(2) 知識獲 得的讀書	(3) 修養 的讀書	(4) 審美 的讀書	計
上 빈도	1,021	120	45	21	1,207
(%)	(84.59)	(9.94)	(3.73)	(1.74)	(100.00)
中 빈도	1,474	245	71	17	1,807
(%)	(81.57)	(13.56)	(3.93)	(0.94)	(100.00)
下 빈도	1,354	252	105	17	1,728
(%)	(78.36)	(14.58)	(6.08)	(0.94)	(100.00)

(2) 表-3, 4, 5, 및 6의 資料를 綜合하여, 全體 男女 中高等學生의 生活水準에 따른 讀書領域別 讀書 빈도와 그 各各의 比率을 算出함으로

씨 生活程度上, 中, 下 各階層이 나타내는 讀書領域別 興味度を 알아내고, 이로써 生活水準과 讀書興味와의 關係에 대한 大體的인 樣相을 淸었다. (表-7 參照)

〈表-7〉 生活水準에 따른 讀書領域別 讀書頻度와 그 各各의 比率  
(男, 女, 中, 高의 綜合)

生活水準		上	中	下
娯樂的 讀書	빈도	3,857	4,485	4,023
	(%)	(82.41)	(80.00)	(74.09)
知識獲得的 讀書	빈도	492	753	927
	(%)	(10.51)	(13.43)	(17.07)
修養的 讀書	빈도	263	324	420
	(%)	(5.62)	(5.78)	(7.73)
審美的 讀書	빈도	68	44	59
	(%)	(1.37)	(0.79)	(1.11)
計	빈도	4,680	5,606	5,429
	(%)	(100.00)	(100.00)	(100.00)

(3) 表-7에 나타나 있는 바 讀書領域別 興味도에 있어서의 階層間的 差異가 有意한 것인지 아닌지 알아내기 위하여 母百分率의 有意性檢證 (Significance Test of Population Percentiles) 方法을 써서 檢證하여 보았다.

그 基本數式은 다음과 같다 :

$$\epsilon = k \sqrt{\frac{p(1-p)}{n_1} + \frac{p(1-p)}{n_2}} \quad (\text{基本數式})$$

生活水準 上과 中, 上과 下, 및 中과 下의 比率의 差를 檢證하고자 위의 基本數式을 다음과 같이 應用하였다 :

$$\epsilon_1 = 1.96 \times \sqrt{\frac{p_{12}(1-p_{12})}{n_1} + \frac{p_{13}(1-p_{13})}{n_2}} \quad (\text{上과 中과의 差異를 檢證하기 위한 數式})$$

$$\epsilon_2 = 1.96 \times \sqrt{\frac{p_{12}(1-p_{12})}{n_2} + \frac{p_{23}(1-p_{23})}{n_3}} \quad (\text{上과 下와의 差異를 檢證하기 위한 數式})$$

$$\epsilon_3 = 1.96 \times \sqrt{\frac{p_{13}(1-p_{13})}{n_2} + \frac{p_{23}(1-p_{23})}{n_3}} \quad (\text{中과 下와의 差異를 檢證하기 위한 數式})$$

(4) 審美的讀書의 領域은 各 生活階層 마다 극히 迅速한 讀書 빈도를 나타내어 계층 간의 比較가 無意味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娛樂的讀書, 知識獲得的讀書 및 修養的讀書의 3 領域만 檢證하였다.

(5) 讀書興味에 있어서 비록 어떤 面으로 集團的 傾向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集團成員의 個人差가 또한 현저하므로, 讀書指導의 實際에 있어서 그와 같은 集團的 傾向을 學生 個個人에게 그대로 適用하는 것은 위험하다.

따라서, 資料處理에 있어서 수집된 資料를 生活水準에 따라 集團적으로 統計를 내는 동시에, 個人的 傾向도 알아보기 위하여 標集된 學校 중 1個校를 選定하여 生活程度 <上>에 속하는 學生 60名 가운데 娛樂的讀書를 거의 하지 않는 學生이 어느 程度 있으며, 生活程度 <下>에 속하는 學生 60名 가운데 거의 娛樂的讀書만 하고 있는 學生이 어느 程度 있는가를 알아 보았다. (假說에 있어서는, 生活水準이 높은 계층일 수록 娛樂的讀書의 比率이 높을 것이라고 되어 있다.)

## 5. 結果 및 解釋

### a. 娛樂的讀書와 生活水準과의 關係

娛樂的讀書에 있어서는, 生活程度가 높은 階層일수록 그 比率이 높을 것이라는 것이 提起된 假說이다.

책을 읽게 되는 데는 必要에 관한 主觀的인 條件이 크게 作用한다.<sup>10)</sup> 生活水準이 높은 家庭의 學生은 生活에 대한 危脅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生活水準을 向上시켜야 할 또는 向上시키고자 하는 切實한 必要나 慾求가 없을 것이므로, 學力上的 實力을 길러서 將來를 期하기 위한 知識獲得的讀書 보다는 娛樂的讀書 쪽으로 기울어지는 傾向을 나타

10. 阪本一郎. 新讀書論. 東京, 講談社, 1959. p. 56.

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假說의 根據이다.

資料處理 결과, 生活程度 上, 中, 下 各 階層이 나타낸 比率(生活程度別 全體 讀書量에 대한 娛樂的 讀書의 百分率)은 각각 82.41%, 80.00%, 및 74.09%이었다.(表-7 參照)

그리고, 各 階層 間의 比率의 差에 대한 有意性을 檢證한 結果, 上과 中 사이의 差 및 上과 下 사이의 差는 각각  $|p_{12}-p_{13}| > \epsilon_1$  및  $|p_{12}-p_{23}| > \epsilon_2$  이므로 有意하였고, 中과 下 사이에서는  $|p_{13}-p_{23}| < \epsilon_3$  으로 나타나 有意한 差異를 發見할 수 없었다. 즉 生活程度 上의 集團과 中 以下의 集團 사이에는 有意한 差異가 있으나, 中の 集團과 下의 集團 사이에는 別반 差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以上の 結果를 綜合할 때, 生活水準이 높은 階層은 낮은 階層에 比하여 大體로 娛樂的 讀書를 많이 하는 편이라고 判斷할 수 있으며, 따라서 假說은 肯定된 것으로 보아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集團의 傾向을 가지고 個人的 傾向을 判斷하는 것은 매우 危險하다. 例를 들어서, 서울에 所在하는 K女子高等學校의 生活程度 <上>에 속하는 學生 60名(1, 2, 3學年 各 20名)의 讀書 카아드를 分析한 결과 13名의 學生은 그들의 全讀書量(88권) 가운데 92%(81권)에 달하는 知識獲得的 讀書를 記錄하고 있었다. 이것은 全體的으로 볼 때 生活程度 上의 集團이 中 以下의 集團보다 娛樂的 讀書를 하는 比率이 높다는 事實을 讀書指導의 實際에 있어서 個個人에게 그대로 適用할 수 없다는 것을 示唆하는 것이다. 스콰이어(Squire, James)도 이 點에 대하여, “研究 結果 現在까지 알려진 바로는 개개인의 讀書에 대한 態度의 傾向은 독특하고, 個別的이어서 선불리 豫測할 수 없는 性質의 것임을 示唆하고 있다.”<sup>11)</sup>는 報告를 하고 있다.

#### b. 知識獲得的 讀書와 生活水準과의 關係

11. James R. Squire. "What Does Research in Reading Reveal about Attitudes toward Reading?" *English Journal*, 58 (April 1969) p. 523.

“어느 社會이고 程度의 差異는 있지만 收入의 高低 및 其他의 特徵에 따라 社會成員이 몇 個의 同質的인 層으로 分離되는 傾向이 있는 것이다. 특히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社會的 階層의 存在는 一般的으로 宜當視되며 社會成員 各者는 어떻게 해서든지 社會上層에 移動하려는 努力을 하게 된다.”<sup>12)</sup>

社會成員 各者가 社會上層에 移動하려는 이 같은 努力은 中高等學生의 讀書活動에 있어서도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生活程度가 낮은 層의 學生은 將次 豐足한 生活를 누리기 위하여 實力을 培養하여야 되겠다는 心理的 緊張을 하게 되고, 이러한 緊張은 學習에 有關한 知識獲得의 讀書를 行함으로써 어느 程度 解消할 수 있을 것이다.

以上이 生活程度가 낮은 계층일수록 知識獲得의 讀書를 하는 比率이 높을 것이라는 假說을 세우게 된 근거이다.

資料處理 결과, 生活程度 上, 中, 下 各 계층이 나타낸 比率(生活程度別 全體讀書量에 대한 知識獲得의 讀書의 百分率)은 각각 10.51%, 13.43%, 및 17.07% 이어서, 生活程度가 낮은 계층일수록 知識獲得의 讀書를 하는 比率이 높을 것이라는 假說과 一致하였다.

그러나, 各 계층 간의 比率의 差에 대한 有意性檢證 결과, 上과 中 사이, 上과 下 사이, 및 中과 下 사이의 差는 각각  $|p_{12}-p_{13}| < \varepsilon_1$ ,  $|p_{12}-p_{23}| < \varepsilon_2$  및  $|p_{13}-p_{23}| < \varepsilon_3$  으로 나타나, 有意한 差異가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앞에서 言及한 바 서울 所在 K 女子高等學校의 生活程度 <下>에 속하는 學生 60名(1, 2, 3 學年 各 20名)의 個人讀書 카아드를 分析한 결과 17名의 學生은 111권의 讀書記錄을 남겼는데, 그 中에는 本 研究에서 設定한 바 知識獲得의 讀書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 全無하였다. 따라서 生活程度가 낮은 계층은 全體적으로 볼 때에는 知識獲得의 讀書를 하는 比率이 多少나마 높다고는 하지만, 個個人을 두고 볼 때에는

12. 洪承稷. 韓國人の 價値觀研究. 서울. 高麗大學校出版部. 1969. p. 102.

전혀 反對의 傾向이 나타나는 수가 있으므로, 讀書指導의 實際에 있어서는 個別的 접촉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간다.

c. 修養의 讀書과 生活水準과의 關係

修養의 讀書은 여기서 哲學書, 宗教書, 倫理·道德書, 및 傳記 등의 讀書을 말하거니와, 生活水準이 낮은 계층의 學生일수록 이 領域의 讀書을 하는 比率이 높을 것이라는 것이 本研究에서 設定한 또 하나의 假說이다.

阪本教授는 讀書慾求가 (1) 抽象的思考의 要求, (2) 經驗擴充의 要求, (3) 自主의 問題解決의 要求, (4) 情緒의 滿足의 要求, 및 (5) 社會適應의 要求 등에서 오는 것이라고 하고,<sup>13)</sup> 이러한 要求中 「情緒의 滿足의 要求」는 讀書을 통한 代行快樂으로써 어느 程度 充足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즉, “現實에서는 充足시킬 수 없는 快樂을 他人의 快樂에 共感함으로써 充足시키는 것을 代行快樂(vicarious pleasure)이라고 하며 그러한 經驗을 代行經驗(vicarious experience)이라고 한다. 讀書은 代行經驗에 의한 代行快樂의 窓口로서 利用된다.”<sup>14)</sup>는 것이다.

岡本奎六教授는 要求阻止에서 오는 讀書慾求가 있는데, 그것은 (1) 現實逃避로서의 讀書慾求, (2) 補償作用으로서의 讀書慾求, 및 (3) 同一化作用으로서의 讀書慾求 등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sup>15)</sup>

生活水準이 낮은 계층의 學生은 經濟的인 面에서 要求阻止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哲學書나 宗教書 등의 讀書을 통하여 現實에서 逃避하려는 心理傾向을 나타낼 可能性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現實의 慾求不滿을 巨富人 偉人 또는 傑人 등의 傳記를 읽음으로써, 代行經驗이나 補償作用이나 또는 同一化作用을 통하여 解消시키려는 心理動向을 나타낼 可能性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生活水準이 낮은 계층

13. 阪本一郎, *op. cit.*, pp. 56-78.

14. *Ibid.*, p. 69.

15. 岡本奎六, 讀書慾求(龜井勝一郎, 等編, 讀書指導의 心理と生理, 東京, 牧書店, 1955, pp. 15-6.)

의 學生일수록 哲學書, 宗教書, 傳記書 등이 포함되는 修養的讀書의 領域에 있어서 높은 比率을 나타내게 될 것이라는 假說을 세웠던 것이다.

資料處理의 결과, 生活程度 上, 中, 下 각 계층이 나타낸 比率(生活階層別 全體讀書量에 대한 修養的讀書量의 比率)은 각각 5.62%, 5.78%, 및 7.73%이었다. 근소한 差異이기는 하지만 生活程度가 낮은 계층일수록 높은 比率을 나타내고 있다.(表-7 參照)

그러나, 각 계층 간의 比率의 差에 대한 有意性檢證의 결과, 生活水準 上과 中, 上과 下, 및 中과 下 사이의 差는 각각  $|p_{12}-p_{13}| < \epsilon_1$ ,  $|p_{12}-p_{23}| < \epsilon_2$  및  $|p_{13}-p_{23}| < \epsilon_3$  으로 나타나 意味 있는 것으로 判定하기에는 不足하다는 것이 알려졌다.

#### d. 審美的讀書과 生活水準과의 關係

審美的讀書에 있어서는, 生活程度가 높은 階層의 學生일수록 그 比率이 높을 것이라는 假說을 세웠었다. 詩集, 音樂書, 美術書 등의 讀書는 經濟的인 여유가 있는 계층에서 더 많이 할 可能性이 있다고 判斷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資料處理의 결과, 이 領域의 讀書의 比率이 豫想外로 低率이어서(生活程度 上, 中, 下 全階層 1,260名의 學生이 記錄한 15,715권의 閱覽 또는 貸出 도서 중, 審美的讀書의 범주에 속하는 도서는 171권, 비율상으로는 1.1%에 불과하였다), 生活水準이 높은 계층일수록 그 比率이 높을 것이라는 假說은 檢證을 위한 試圖조차 하지 못하고 말았다.

外國學生의 경우에 있어서도, 審美的讀書는 그 序列이 가장 낮은 것이 事實이다.<sup>16)</sup> 그러나 우리처럼 問題 삼을 수도 없을 정도는 아니다. 우리 學生들이 보여준 이 같은 傾向은 審美的讀書에 대한 그들의 興味度의 反應이기도 하겠지만, 이 分野의 書籍을 얼마 發刊하지 않는 우리 出版界의 事情을 알려주는 것으로도 解釋된다.

16. Robert Emans and Gloria Patyk. "Why Do High School Students Read?" *Journal of Reading* (Feb. 1967) pp. 301-2.

## 6. 結論 및 反省

### 2. 結 論

지금까지의 討議의 結果를 綜合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生活水準이 높은 계층은 낮은 계층에 비하여 대체로 娛樂的 讀書을 많이 하는 편이다.

(2) 知識獲得의 讀書에 있어서는, 生活水準이 낮은 계층일수록 그 比率이 약간씩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差異가 현저하지는 않다.

(3) 修養的 讀書에 있어서는, 生活水準이 낮은 계층일수록 그 比率이 약간씩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역시 그 差異가 현저하지는 않다.

(4) 審美的 讀書에 있어서는, 生活水準 上, 中, 下 3 계층이 모두 극히 근소한 比率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계층 간의 差異를 發見할 수가 없다.

(5) 中高等學生의 讀書興味에 있어서는, 同質集團에 있어서는 集團의 傾向보다 個人的 傾向이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

以上の 結論을 다시 綜合하여 얻은 結論은 다음과 같다.

(6) 生活程度 上, 中, 下 각 계층이 각 讀書領域에서 나타난 興味度에 있어서 비록 계층 간에 뚜렷한 差異를 發見할 수 없었다고 하나, 男中, 女中, 男高, 및 女高의 4 種의 學校가 「娛樂的 讀書」에 있어서는 例外 없이 生活水準 上→中→下의 順序로 比率을 나타내었고, 「知識獲得的 讀書」 및 「修養的 讀書」에 있어서는 例外 없이 下→中→上의 順序로 比率을 나타내었다는 것은 注目할 만 하다.(表-8, 9, 및 10 參照)

(7) 修養的 讀書은 一般的으로 바람직한 것이지만, 生活水準이 낮은 계층이 現實的 要求阻止로 인하여 이 領域의 讀書에 지나치게 몰두한다고 하면, 그것은 心理的 不健康을 意味하는 것이므로 特別한 指導가

〈表-8〉 生活程度別 娛樂的讀書의 比率(%)

生活程度		上	中	下
學校種別				
男	中	83.89	82.14	82.12
女	中	89.76	86.20	74.52
男	高	71.68	69.40	64.04
女	高	84.59	81.57	78.36

〈表-9〉 生活程度別 知識獲得的讀書의 比率(%)

生活程度		上	中	下
學校種別				
男	中	7.89	8.53	8.87
女	中	6.88	9.74	20.81
男	高	16.21	20.30	20.33
女	高	9.94	13.56	14.58

〈表-10〉 生活程度別 修養的讀書의 比率(%)

生活程度		上	中	下
學校種別				
男	中	7.89	8.53	8.87
女	中	3.16	3.82	4.48
男	高	8.80	9.06	12.88
女	高	3.73	3.93	6.08

있어야 한다. 그러나 本研究의 結果, 그 點에 있어서 우려할 만한 증후가 보이지 않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하겠다.

(8) 中高等學生들이 全體의으로 娛樂的讀書에 지나치게 熱中하고 있는 反面에, 知識獲得的讀書, 修養的讀書, 및 특히 審美的讀書에 등한하다는 事實(娛樂: 78%; 知識獲得: 14%; 修養: 7%; 審美: 1% 程度)을 볼 때, 이같은 偏讀傾向을 是正하고 讀書領域을 擴大시키기 위한 努力이 要請된다고 하겠다.

더욱이, 審美的讀書領域에 있어서 學生들이 나타낸 寒心스러운 興味

度는 多분히 情緒的 不健康을 意味하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中等教育 計劃에 있어서 이 點에 대하여 格外한 配慮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안다.

(9) 學生들의 讀書興味에 있어서, 集團의 傾向 보다는 個人的 傾向이 더욱 顯著하다는 事實은, 敎師들이 讀書指導의 實際에 臨할 때 個別指導에 比較的 많은 努力을 기울여야 할 必要性을 示唆하는 것으로 理解된다.

#### b. 反 省

研究의 過程에 있어서 몇 가지 反省되는 點이 있었다. 後日에 同一한 問題를 다루게 될 이를 위하여 여기에 적어 둔다.

(1) 資料의 수집이 當初의 計劃대로 되었다라면, 標本의 크기가 利用한 有效資料의 3倍 이상 되므로 有意性檢證에 있어서 보다 積極的(肯定的)인 結果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2) 中高等學生들의 讀書活動에 있어서의 社會階層別 心理的動向의 파악을 위하여서는 本研究에서 利用한 個人讀書 카아드와 같은 間接的 資料 外에 部分的으로 質問紙를 併用하였다라면, 보다 信憑性 있는 證言이 可能하였을 것이다.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Backgrounds and Reading Interests  
of High School Students

Doo-hong Kim\*

〈ABSTRACT〉

The study tries to clarif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reading interests in recreational, informative, inspirational, and aesthetic reading areas. 1,260 students' reading cards from 7 schools are divided into economically high, middle, and low groups, each of which is subdivided into reading objectives.

The writer finds no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students' economic status and their reading preferences. However, the study indicates that recreational books are read in the order of higher, middle, and lower economic groups and informative and inspirational books in the reversed order. The writer also finds different preferences between individuals more evident than those between groups, and recommends individualized reading guidance for students.